



즉시 배포용: 2023년 8월 2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대학 전문직 연합회와의 4년 노동 협약 비준 강조

UUP 회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계약 승인

UUP와의 계약에 미국 최대 고등 교육 연합인 SUNY 시스템의 37,000명 이상의 교수진 및 전문 직원 포함

계약에는 연간 급여 인상, 위치 수당 인상 및 12주간의 전액 유급 육아 휴직 포함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립대 교수 및 전문직 직원 37,000여 명을 포함하는 대학 전문직 연합회(United University Professions)와 4년 노동 협약을 비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까지 계속 시행되는 이 협정은 투표한 UUP 의원 중 96.4%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매일 뉴욕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중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열심히 일하는 대학 전문직 연합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협약을 마무리하고 우리의 재능 있는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이 우리 주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Kowal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비준된 계약에는 매년 계약 인상안이 포함되며 이는 최근에 협상한 다른 협약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에는 일시불 보너스와 최대 12주간의 전액 유급 육아 휴가와 같은 기타 보상 인상안이 포함됩니다. 이 계약에는 네트워크 소속 직원 활용을 장려하고 건강 보험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 보험 프로그램의 변경도 포함됩니다. 계약에는 노사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됩니다.

대학 전문직 연합회(United University Professions, UUP)의 회장인 Frederick E. Kowal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압도적인 다수가 협정에 찬성표를 던진 이번 비준 투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계약은 급여가 가장 낮은 회원, 직장에 다니는 부모, 팬데믹 기간 동안 목숨을 걸었던 공립 교육 병원의 교수진과 교직원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37,000명의 회원에게 혜택을 줄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를 기꺼이 협상하려는 Kathy Hochul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John B. King, Jr. SUNY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NY 학생과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는 SUNY 캠퍼스 및 병원의 교수진과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헌신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의 성공과 전공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한편, 사회 문제 해결이나 환자 돌봄에 헌신하는 연구자 및 전문가로, 모두 뉴욕 주를 위해 봉사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력을 보여준 Kowal 총장님께 감사드리며 교수진과 교직원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